제주문화가 이슈&현장 도심 문화공간 역량 키우자

30년 세월… 이젠 동네 마실가듯 공간 즐길 때

제주시 신산공원 중심에 두고
민속자연사박물관·문예회관
영상문화산업진흥원까지 조성

도보로 이동가능한 거리 위치
네트워크 강화로 상승 효과를

지난 24일 저녁 제주도문예회관 앞마당.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들었다. 마실 나오듯 편안한 차림이었다. 수십년간 도시가 팽창하며 어느덧 도심으로 편입된 문예회관의 입지적 조건을 말해주는 광경이었다. 준비된 좌석은 말할 것도 없고 입석의 관객들은 문예회관 개관 31주년을 기념한 '여민락 콘서트'를 밤늦도록 즐겼다.

문예회관 일대는 제주 대표 문화공간이 들어선 곳이다. 크고작은 문화 행사들이 그 주변으로 몰리고 있는 만큼 오랜 전통을 지닌 문화공간들이 빛을 발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제주 최초 '문화 단지'가 있었다=문예회관이 이웃한 신산공원 일원은 제주 최초의 '문화 단지'로 일컬을 만하다. 다른 시도에서 대규모 문화 지구를 조성하기 전부터 사적 삼성혈에서 시작해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1984년 개관), 제주도문예회관(1988년), 제주민속관광타운(지금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997년)이 차례로 생겨났다. 문예회관에서 제주시청으로 향하는 방면에 있는 제주문예재단 건물까지 합치면 제주에서 손꼽히는 '문화동네'다.

10년 전인 2009년에는 제주 1호 문화의 거리로 삼성혈 문화의 거리가 지정됐다. 신산모루 4거리에서 삼성혈과 제주성지에 이르는 1150m 구간이다.

제주시청과 가까운 이 지역은 접근이 용이한 이점을 지녔다. 문예회관,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도내 공공공연·전시장, 공립 박물관 중에서 방문자 수가 상위를 달린다. 신산공원은 탐라문화제, 책 잔치 등 크고 작은 문화행사장으로 쓰여왔다.

▶일상에서 문화 누리기 맞춤한 위치=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지정 초반에 도로와 환경 정비, LED 가로등 설치 등에 60억 가까운 예산이 쓰이는 등 공적 자금이 대거 투입됐다. 거리에 문화의 색깔을 입히려는 시도였지만 근래 그 주변 지역을 생기있게 만드는 건 자그만 숲이 조성된 신산공원을 에워싼 문화공간들이다.

최근에는 기존 삼성혈 문화의 거리 지정 구간을 신산모르 사거리에서 문예회관 방면으로 530여m 연장하는 방안을 시도한 일이 있지만 그보다는 기존 문화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예회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영상문화산업진흥원 3곳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경우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어서다.

이들 공간은 신산공원을 사이에 두고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여서 제주 도민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이 가동된다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30년 안팎의 역사에 걸맞게 공간의 역량을 키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수십 년 세월의 파고를 넘어온 우리 동네 문화공간부터 돌아보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소목장으로 산다는 것… 더 깊어진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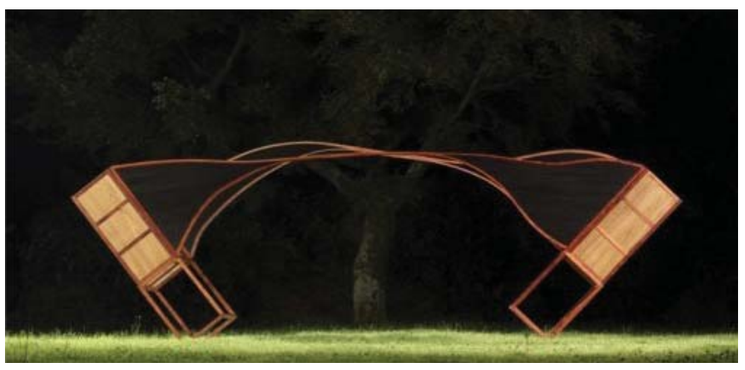
지난해 도미술대전 대상
김현성 작가 초대개인전
김연주 기획자가 멘토링
작업 완성도 높이는 역할

"작년 대상을 받은 뒤부터 이 전시만 준비했다. 한 가지 주제를 집요하게 파고 들자 생각하며 작업에 몰두했다."

지난 24일 제주도문예회관 2전시실에서 막이 오른 제44회 제주도미술대전 대상 작가전. 주인공인 김현성 작가는 개인 작품전이라는 긴장감, 작가로서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는 설렘이 교차하는 듯 했다.

제주미술협회는 도미술대전 혁신안을 통해 2017년부터 평면·입체 분야 작품을 공모해 대상 작가에게 상금 1000만원을 수여하고 초대전을 지원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론가, 기획자 등과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가동됐다.

이번에는 문화공간 양 김연주 기획자가 '멘토'로 동행했다. 김 작가는 지난 3월부터 한 달에 두 번 가량 김연주 기획자와 만나며 작업의 완성도를 높여갔다.



김현성의 '결 #3'.

전시에 달린 이름은 전년도 대상 수상작과 같은 '결'. 김 작가는 오동나무를 인두로 태운 뒤 표면을 살짝 갈아내는 낙동법, 나무와 나무를 잇는 결구법, 나무를 수증기에 쪄서 구부리는 스팀 벤딩 기법 등으로 공예와 순수미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더 깊어진 '결'의 세계로 관람객을 이끈다. 하나를 완성하는 데 3개월 넘게 걸린 작품이 있을 정도로 고된 노동이 바탕이 됐다.

김 작가는 중요무형문화재 소목장 기능을 익혀왔고 한국공예건축학교 전통 목가구 연구과정을 수료했다. '결'은 소목장으로 사는 삶과 철학을 담은 제목이다. 나무의 결, 그 위에 재현한 물의 결(파동)은 마음의 결과 통한다. 자연의 이치를 읽어야 하는 나무 작업은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과 닮았다.

"지난 1년 대학 입시를 새로 치르는 기분이었다"는 김 작가는 "김연주 기획자가 자칫하면 산으로 갈 수 있는 작업을 잘 잡아주고 스토리텔링을 지원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줬다"고 했다. 전시는 9월 5일이면 끝이 나지만 '결' 연작은 계속된다. 김 작가는 "또 다른 '결' 작업을 하고 싶다. 전통 형식을 넘어 색다른 목재들, 오브제들로 '결'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진선희기자

문화가 쪽지

거리퍼포먼스 참가자 모집

제주문화예술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 다원예술분야 선정작인 거리 퍼포먼스 '나의 살던 고향은' 시민예술단을 모집하고 있다.

구럼비 유랑단 주최로 9월 21일과 22일 제주시 건입동에서 진행되는 이번 퍼포먼스는 관객이 직접 공연자가 되어 무용, 플래시몹, 거리극 등을 펼친다. 모집은 이달 31일까지 인터넷(bit.ly/homeilived)으로 이루어진다. 문의 010-2379-0760, youpi@nate.com

여성영화제 관객심사단 모집

제주여민회는 9월 24~29일 진행되는 제20회 여성영화제 관객 심사단을 모집하고 있다.

관객 심사단은 단편 경쟁 부문인 '요망진 당선작' 본선 진출 작품 11편을 직접 보고 '요망진 관객상'을 선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객 심사단에겐 '요망진 당선작' 무료 관람 기회를 주고 소정의 기념품과 영화제 관람권 1매를 제공한다. 모집 인원은 20명이다. 15세 이상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문의 064)756-7261.

이번주(8월 27일~9월 1일) 무대 & 미술

사랑한다면 열두 곡의 이 음악을

앙상블 까메라타 정기공연
'플레이리스트' 첫 시리즈

제주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앙상블 까메라타'가 청중과 호흡하는 무대를 빚는다.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진행되는 네번째 정기연주회다.

이번 연주회는 '플레이리스트(PLAYLIST)' 시리즈의 첫 무대다. '99센티멘탈'을 주제로 12곡을 선곡해 사랑을 하며 겪게 되는 감정의 변화를 음악적 내러티브로 구성해 들려준다.

<공연>

▶오페라뱅크 창단 연주회 '라보엠'=8월 27일 오후 3시와 7시30분 문예회관. 010-4235-0783.

▶김형관 플루트 독주회=8월 27일 오후 7시30분 아라뮤즈홀. 754-4697.

▶제주농협 하나로합창단 연주회=8월 27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9601-5354.

▶뮤지컬 '동텃져 혼저글라'=8월 28~30일 오후 7시30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729-9500.

▶한여름밤의 팝스콘서트=제주팝스오케스트라 출연. 8월 28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 728-1509.

▶희빈합창단 연주회=8월 29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5525-3499.

▶발레 '한 여름밤의 꿈'=8월 30일 오후 2시(개인 관람 불가), 8월 31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760-3365.

▶까메라타 앙상블 연주회=8월 30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6653-9552.

▶서머 송, 사극속 음악을 만나다=8월 31일 오후 3시 문예회관. 710-1111.

▶송소희와 함께하는 국악재즈록 콘서트=8월 31일 오후 3시 제주아트센터. 728-1509.

▶제주도 플루트협회 '추억'=9월 1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4334-0880.

▶방울이의 낮잠여행=두근두근 시어터 초청공연으로 9월 1일까지. 070-8610-7857.

<전시>

▶히가 토요미츠 사진 초대전=8월 27일까지 포지션민제주. 725-4410.

▶권하형·허란 사진전 '사건이 발생했다'=8월 27일까지 스페이스 산호. 010-3430-7334.

▶제45회 제주도 미술대전 선정작가 전시=제주미술협회 8월 29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제13회 탐라서예문화 회원전=8월 29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산지천을 노닐다=8월 29일까지 산지천갤러리. 725-1208.

▶제주 무구전=8월 30일까지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753-7812.

▶서귀포시 사천미술학원 국제협력전 '플라잉 오브 뉴미디어'=8월 30일까지 기당미술관. 733-1586.

▶히나 윙 개인전=8월 30~9월 1일 갤러리 18번가. 010-7629-8011.

▶제주도서예문인화대전 입상작=8월 31~9월 5일 문예회관. 710-7633.

▶삼다연서학회 '먹글로 희망나누기'=8월 31~9월 5일 문예회관. 710-7633.

▶신정훈 개인전=연갤러리 신진청년작가전으로 8월 31일까지. 010-5697-1114.

▶조기섭 개인전=8월 31일까지 스튜디오126. 010-9036-3551.

▶진주아 개인전=8월 31일까지 돌하르방공원 돌집갤러리. 010-9621-0318.

▶박지현 개인전=8월 31일까지 거인의 정원. 759-5759. 진선희기자

'플레이리스트' 시리즈를 이어가는 앙상블 까메라타.

대한민국 대표방수제 친환경 칠만표방수제 누구나 칠만하면 장기간 100% 방수

KCC 페인트 제주대리점 컴퓨터 자동시스템(조색기) 구비

강력접착방수제

특징 ○ 통기성(공기는 통해도 물은 들어가지 않는) 이 있어 들뜨지 않습니다.

용도 ○ 모든 콘크리트 건축물 일절(옥상, 외벽)

※ 소비자가 인정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수제
(주시공처 ·건입동 현대아파트 ·외도 일우아파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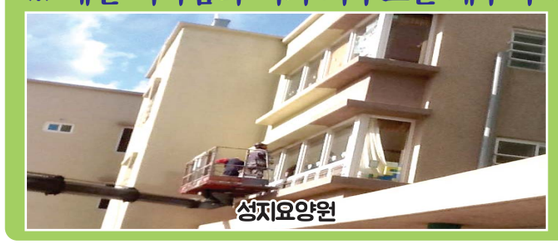
한번 칠하면 오래가는 칠만표 수용성 외벽 방수페인트

칠만하면 100% 방수와 페인트칠을 한번에 (시간절약, 비용절약)

특징 ○ 들뜸이 없고 부식이 안돼 장기간 미관유지
○ 단열효과로 집안이 쾌적하다

용도 ○ 드라이비트 및 콘크리트외벽 (주택, 아파트, 빌라, 팬션, 호텔, 상가 등)
○ 타일면 ○ 벽돌면 ○ 스톤면

※ 세찬 비바람과 비가 자주오는 제주 주택에, 특히 드라이비트 외벽에 참 좋습니다.



성지요양원

이도아구찜빌딩(타일면)

싱글지붕용 탄성도막 방수제

부식이 되어있는 싱글지붕을 칠만하면 방수되고 탄탄한 새지붕으로 바뀝니다.

·노형 위더스빌라 12차 ·세일자동차 외

★ 주요생산품 : 녹/회색 접착방수제, 황토방수제, 균열보수제, 모체강화제, 수용성침투성방수제(발수제), 타일줄눈방수제, 결로방수제, 고농축완결방수제, 급결지수제, 우레탄류

최고급 벽난로 무동력 화목 + 펠릿 겸용난로 판매

※ 초기 점화 토치구에서 30초내 점화 5분이면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 장작용 벽난로, 정원, 캠핑용 난로도 있습니다.

방수 백화점 금강종합건재 KCC 페인트 · 칠만표방수제 · (주)대화정밀 · 현대공구 · 난로세상 제주대리점 T. 752-8209, 758-8209, F. 753-8209 ※모방품 주의바랍니다.